

-(으)ㄹ 것 같다

~할 것 같다, ~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

것 같다 짝 중 미래 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, 근거가 거의 없는 인상을 말할 때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것 같다	오다 → 올 것 같아요
받침 있음	-을 것 같다	먹다 → 먹을 것 같아요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것 같아요
형용사	-(으)ㄹ 것 같다	춥다 → 추울 것 같아요
과거 추측	-았/었을 것 같다	갔을 것 같아요
이미 보이는 상황	-(으)ㄴ/는 것 같다	온 것 같아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, ㄹ 어간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. 만들다는 만들 것 같아요.

가 됩니다. 대표적인 용법은 예측입니다: 비가 올 것 같아요(비가 올 것 같다). 근거가 부족할 때 현재에 대한 추측에도 쓰고, 공손하게 거절할 때도 씁니다: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는 한국인이 '안 된다'고 직접 말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식입니다.

-(으)ㄹ 거예요와 비교하면 차이는 확신의 정도입니다. 갈 거예요는 계획을 말하고, 갈 것 같아요는 확정하지 않은 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. 한국어 화자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후자를 자주 씁니다.

이미 끝난 일에 대한 추측이라면 과거를 안에 넣습니다: 벌써 갔을 것 같아요.

■ 예문

- 1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.
- 2 내일은 좀 추울 것 같아요.
- 3 죄송한데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
- 4 이 음식은 매울 것 같아요.
- 5 그 사람은 벌써 갔을 것 같아요.
- 6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

■ 비교

-(으)ㄴ/는 것 같다
-(으)ㄴ/는은 이미 관찰할 수 있는 일을 말하고, -(으)ㄹ은 앞일을 가리키거나 짐작에 근거합니다.
비가 온 것 같아요. (땅이 젖어 있다) / 비가 올 것 같아요. (하늘이 어둡다)

-(으)ㄹ 거예요
관형형은 같지만 끝맺음이 다릅니다. 거예요는 단언하고, 것 같아요는 완곡하게 말합니다. 실제로 한국어 화자는 완곡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, 학습자는 지나치게 단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내일 갈 거예요. (간다) / 내일 갈 것 같아요. (갈 것 같다)

공손한 거절
한국어에서는 대놓고 거절하는 일이 드뭅니다. -(으)ㄹ 것 같다는 거절을 인상처럼 표현하며, 분명한 거절로 이해됩니다.
못 가요. (갈 수 없다) /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(어려울 것 같다)

■ 주의

- ✗ 저녁을 만들을 것 같아요.
○ 저녁을 만들 것 같아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수 있다와 마찬가지로입니다.
- ✗ 그 사람은 벌써 갈 것 같아요. — '이미 갔을 것 같다'는 뜻이라면 (×)
○ 그 사람은 벌써 갔을 것 같아요.
끝난 동작에 대한 추측은 관형형 안에 과거를 넣습니다: -았/었을 것 같다.
- ✗ 밖에 비가 올 것 같아요. —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일 때 (×)
○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.
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-는 것 같다를 쓰세요. -(으)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씁니다.